

50대 조기퇴직 현실로… 주요 기업 ‘제2의 삶’ 지원 나서

불안한 중장년층 직장인

평균 퇴직연령 男 51세·女 48세
개인 넘어 사회 지속가능성 영향
기업, 경력 재설계 등 해법 마련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는 직장인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대기업에 다니고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있고 명문대생 아들이 있다는 건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정작 김 부장 본인은 50대의 젊은 나이에 은퇴와 불안정한 현금 흐름, 자녀 교육비 등을 걱정하며 살아간다. 이에 주요 기업들은 ‘제2의 삶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층 직장인들의 노후설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16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주된 일자리(가장 오래 다닌 직장)



지난 10일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퇴직 연령은 남성 51.3세, 여성 47.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를 희망하는 나이는 65세이지만 실제 회사를 떠나는 시점은 15년이나 빠르다. 이에 국내 주요 기업들은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계열사 직원들의 퇴직 후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중장년층 직원을 대

으로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만 50세 이상 직원으로 기본연봉의 50%에 남은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최대 6년까지만 인 정해 기본연봉의 300%가 최대치다. 또 자녀 1인당 1000만원씩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며 별도 경력개발비 10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휴가비와 차량 추가 구입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현대위아도 만 50세 이상 직원들을 대

상으로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 프로그램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연간 급여의 3년치를 희망퇴직금으로 지급(자녀학자금도 포함)하며 1년간 창업과 재취업, 자산관리 등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LG화학 등 계열사도 이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인생설계를 돕기 위한 ‘브라보 라이프 디자인’ (Bravo Life Design)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GLD(Green Life Design)라는 퇴직 후 삶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BLD는 퇴직

후 재취업, 건강관리, 자산관리 등 다양한 생애설계 교육을 제공한다.

반면 반도체 업계는 우수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기술 인재의 정년을 없애고,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술 전문가 제도(Honored Engineer·HE)’를 2018년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우수 기술 인재를 붙잡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은퇴 후에도 실무와 후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전자도 2022년부터 우수 인력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시니어 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이 낮아지면서 중장년층 일자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의 중장년 고용 지원 확대와 주요 기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이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국민연금, 통화스와프 거래 확대… 환헤지 ‘탄력적 집행방안’ 마련

원·달러 환율 연고점 위험

‘전략적 환헤지’ 내년말까지 연장
“외환당국 개입 여부가 단기 방향 결정”

국민연금이 연일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진정을 위해 외환당국과의 통화스와프, 전략적 환헤지를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 환헤지 시 시장 가격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적 집행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도 최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고환율 대책 마련에 돌

입한 만큼, 유관기관의 적극 개입을 통해 환율이 진정될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기금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 올해 말 만료되는 국민연금공단과 한은의 통화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기관 간의 스와프 한도를 650억달러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통화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시 필요한 달러를 한은의 외환보유고에서 조달하는 방법이다. 빌린 금액을 만기 시 일시 상환하는 만큼 해외 투자 시에도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환율 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최근 해외투자를 확대하며 달러 수요를 늘리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연장·확대를 통해 달러 현물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 상승 억제를 위해 ‘전략적 환헤지’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일부 해외자산을 선물환 매매하는 방안이다. 환율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매매하는 만큼 시장에 달러가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환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특히 전략적 환헤지가 실행되는 기준이 알려지면서 환헤지만으로는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던 만큼,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수시로 환헤지를 진행하는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시장의 예측을 어렵게 해, 전략적 환

헤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외환당국의 개입 여부가 단기간 환율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만 유독 약세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달러 약세와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이 원화 추가 약세 우려를 충분히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 수준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외환당국의 개입 여부가 주목된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고객 건강을 위한 신뢰의 기업 유한양행 100년의 신뢰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정품 확인은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제품 구매 시 인증 마크가 부착된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세요.



유한양행